

“살때도 죽을때도 온몸으로 살고 죽어라”



할
최인호 지음
여백 펴냄
1만3천원

“살 때는 온 몸으로 살고, 죽을 때는 온 몸으로 죽어라”

1990년대 초,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 최인호는 불교의 진리에 감화해 구한말 선승들의 향훈을 찾아 전국 사찰을 답사했다. 이 만행서 그가 관심을 가진 첫 대상이 바로 경허 선사였다.

스님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근대 불교의 선봉을 일으켰다. 천주교에 귀의한 뒤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선 저자에게 불교의 선승들, 특히 경허 선사가 지나간 발자취는 선명한 구도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15년간 150만 부를 돌파한 스테디셀러 <길 없는 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드러냈다. 다시 저자는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이었던 2012년, 경허 선사와 그의 세 수법제자들과 맺은 인연을 풀었다. 그리고 최근 <길 없는 길>서 경허와 세 수법제자의 이야기만 따로 뽑아 재구성해 세상에 선보였다.

이번에 나온 신간은 바로 <길 없는 길>을 걸었던 위대한 선승들의 이야기를 장편소설로 구성한 것이다. 또한 책 말미에는 부록으



경허 선사 수월 선사 혜월 선사 만공 선사

경허와 세 제자 이야기 소설로

‘만법일귀’의 진리 전해줘

부록으로 선승들 사진도 수록해

로 경허, 수월, 혜월, 만공의 흔적들을 다뤄 형식의 사진에 담아놓아 선승들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 말기 국운이 스러져가던 시대, 경허 선사는 사자후와 같은 일갈로, 때로는 오묘한 이치를 담은 설법으로, 또 경악할 경지의 파행과 기행으로 세속의 부조리를 꾸짖었다. 그는 꺼져가는 불명의 불씨를 되살려 낸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선구이자 위대한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수법제자인 ‘세 개의 달’ 수월·혜월·만공 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불교 중흥을 이끈 찬란한 불법의 꽃봉오리다. 이 책은 이 위대한 자유인들의 여러 일화와

법문을 좇아 ‘길 없는 길’의 여정을 떠난다.

본디 ‘할(嗚)’은 사찰과 선원서 학인(學人)을 꾸짖거나 말이나 글로써 나타낼 수 없는 도리를 나타내 보일 때 내뿜는 소리를 이른다. 법기와 수련이 높은 승려가 토해내는 ‘할’에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자후와 같은 기운이 서려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침묵의 소리, 모든 분별과 욕망과 번뇌를 일거에 불태워 버리는 자각의 번갯불,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침묵의 함성이다.

이 책은 경허의 기행으로부터 시작한다. 경허는 겨울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여인 한 명을 자신이 머물던 해인사의 조실로 데리고 온다. 이후 경허와 여인은 조실에 틀어박힌 채 며칠 동안 두문불출한다. 당시 경허를 보필하던 만공(경허의 막내 수법제자)은 스승의 기행이 사내 대중들의 입에 오를까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조실에 들어선다. 그리

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한센병이 들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여인을 스승 경허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이다. 썩어가는 육신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만공은 말했다.

“나도 경허 스님처럼 이 여인을 하룻밤만이라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는 몹시 부끄러워졌으며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최인호 장편소설 <할>에는 말년 경허가 보였던 기행으로 시작해 그의 수법제자인 수월·혜월·만공 선사가 보인 선화와 그들이 남긴 법문을 하나하나 훑아가고 있다. 세속뿐만 아니라 불가에조차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사라졌던 수월 선사, 이 세상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천진불 혜월 선사, 일제에 의해 국운이 스러져 가고 불심(佛心)이 퇴색해 가는 현실 앞에서 대중들을 깨우쳤던 만공 선사. 그들이 남긴 범접하기 힘든 깨달음의 경지는 흐릿해진 정신을 반짝 일깨우는 꾸짖음이자 가르침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각자(覺者)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 자신 앞에 놓인 맑은 거울을 비추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 일상의 관습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화두를 받아드는 일일 것이다. 그들은 묻는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김주일 기자 kimj127@hyunbul.com

‘멘붕’의 근본적 해결은 자기성찰에서 비롯돼

길 없는 곳에서

덕일 지음 | 작은숲 펴냄 | 1만3천원



언제부터인가 ‘멘붕’이란 말이 유행중이다.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발견할 수 없고, 남북문제는 더욱 꼬여

만 가며, 학교 폭력, 양파, 대학 등록금, 복지 등 무엇 하나 희망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틀에 갇혀버렸다.

멘붕이 감기처럼 유행한 원인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버티면 낫는다’ 감기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다고 ‘멘붕’이 해결될까? 감기처럼 딱딱히 멘붕 시대를 지켜보던 덕일 스님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감기약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처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길 없는 곳에서>이다.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이 제게 와서 ‘길’을 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덕일 스님은 이미 BTN 불교TV서 방영한 ‘금강경 생활법문’을 통해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다시 신간 <길 없는 곳에서>를 들고 독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불교TV를 통해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성공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스님은 올 초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멘붕’을 지켜보며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 책은 희망을 접고 절망을 호소하며 길을 찾기 위해 선원에 와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전한 상담과 법문을 엮은 책이다. 스님이 이 책을 엮은 동기가 우리가 현재 겪는 마음의 공허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반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 5개의 장으로 나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1부 인연으로 부터 2부 교육, 3부 성공, 4부 인생, 5부 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우리 중생들이 세상과 인연 맺고 사랑하며 결혼하고, 아이 낳아 교육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님의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와서 이혼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스님은 답한다. “부부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함께 살아가는 데 이상 덕을 쌓지 못하고 약간 쌓을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인연 맺으면 해원(解冤)해야 합니다. 어떤 원도 다 풀고 나서 방생(放生)하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삶을 살다보면 왜 그렇게 고통만 따르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에 또 스님은 말한다. “갈등, 질병과 죽음, 비난과 비방, 좌절과 실패 등 이런 고통의 맨 속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엄청난 불행이 이겨 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을 던지는 처절한 사투를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마음 한복판에 잠재된 자신의 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내면에서 감응하는 영묘한 능력 자신의 참마음의 전지전능한 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한다.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노라면 결국 인생의 답이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정답’이 없음을 알게 된다. 다소 파격적(?)인 해결책들도 제시한다. 하지만 스님은 ‘당당하게 살라’며 맺고 있다. 그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당당한 인생은 바로 자기 안에 숨어 있는 ‘희망’이라는 보물을 찾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며 늘 고통받는다. 길 없는 곳에서 막막할 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 ‘멘붕’의 근본적 해결은 바로 자기 성찰에 있으며,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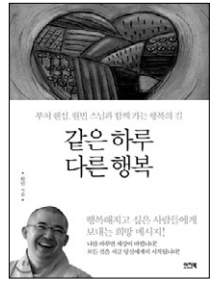
▲저자인 덕일 스님은?

1983년 해인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자은 스님을 계사로 수계한 후 1988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향성선원을 창건해 교화하면서 BTN 불교TV 금강경 생활법문, 법화경 특별법문에 출연해 법문하며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일 수많은 대중과 만나면서 법회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 BTN 불교TV ‘농림경 생활법문’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별로 생각하지 말고 성리대로 걷지 마라>가 있다.

군법사 원빈 스님의 100℃ 행복 강연

같은 하루 다른 행복

원빈 지음 | 이자복 펴냄 | 1만3700원



“세상의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아픔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가요?”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웰빙(Well-Being)의 트렌드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하루, 비슷한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다. 현 군종장교로 군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스님은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행복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다. 독서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를 조직하고 군인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며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2000여 명에게 이메일로 행복의 길을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의 길과 페이스북에 실은 글을 정리하여 <같은 하루 다른 행복>을 출간하게 되었다. 스님의 페이스북에 눈길을 끄는 위트 있는 사진과 함께 실린 글은 젊은 스님의 힘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 유머와 위트까지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 읽어 그 반응이 뜨겁다. 원빈 스님은 ‘웰빙’ ‘힐링’의 열풍은 뜨겁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정작 ‘행복’에 대해서는 무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행복도 공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愛語’는 탐진치 삼독 없애줘

년 참 예쁘구나

관영택 지음 | 돌을 새김 펴냄 | 1만2천원



“에당초 하찮은 것 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이웃이고 이 세상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냥 흘릴거던 일상의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의 모습과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의 진심이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삼라만상에 관심을 두고 자세히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더불어 스스로를 자세하게 살필 줄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찌고, 뉴스에서는 어찌고... 날로 거칠고 험악해지는 세상사 이야기는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아니 이제는 어지간한 놀라운 이야기에는 마음도 무뎠진 것 같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불교에서는 애어(愛語)라고 한다.

어는 상대방은 물론 스스로를 밝게 만든다. 사람이 밝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밝은 사람이 많으면 사회 역시 밝아진다.

저자는 몸과 입과 뜻으로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참해진다고 말한다. 스스로 참해지면 세상도 참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우리 안의 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즉 탐진치를 벗어나 몸과 입과 뜻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다운 삶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년 참 예쁘구나”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년 참 생각이 깊구나” 등 좋은 말, 따뜻한 말로 온 세상이 그득 차오르면 좋겠다는 게 저자의 바램이다.

그러면 위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저마다 힐링을 이야기하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다고 한다고 말한다.

저자인 덕일 정사는 현재 대한불교진각종 총의회의원이며 보원심인당 주교로 있다.

김주일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원목 법상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모십니다

소승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고해사 주지 도경입니다. 소승은 禪大韓佛敎曹溪宗 종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에 함께 종단 운영에 동참하실 원로대덕 큰스님과 도심 및 초야에 소속없이 홀로계신 모든스님께 밖으로는 불국정토 구현과 안으로는 친목 및 내부 결속을 다져 부처님 법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많은 지도편달 바라옵고 뜻있는 모든 스님 대환영하며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959-1825, 010-3114-1825**
사전에 전화로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선대한불교조계종 곱고 解해 寺사
예비모임일 : 2013년 양 5월 30일 오후 3시

- ◆ 종단운영 및 불교사업 토론 ◆ 예비모임에 참석하신 스님위주로 운영됩니다.
- ◆ 종단에 가입하실 스님 접수도 받습니다. (사찰등록증, 임명장, 종단회원증, 운영지침 드립니다.) (무속인, 철학원, 명상수련원, 기공원, 심의 후 가능)
- ◆ 도심속기도도량 고해사에서 함께 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바로 사용하는 秘傳 실전 구 성 학

- ◆ 단기 7일 완성 ◆ 속성 2~3일 완성! (지방속속가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교용으로 적합
교육 후 바로 실전가능! 안되면 될때까지!
공부와 진검 승부의 장, 실전 구성학 카페 준비중!
년 1-2회 최고권위자 세미나 개최 준비중!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실전에 강합니다.